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6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10일(음력 7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종교지도자 양성大’ 축소 중앙승가대, 변화로 넘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 전공 교육당국 일반 계열로 분류 지난해 평가로 불이익 받아 지정고시 개정안서 제외도

중승대, 올해 학제개편 단행 ‘승가학부’ 전공 통합 일원화 사회복지, 교양과정으로 전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회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교육부가 예고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안’이 종교계의 반발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을 절반가량 줄일 것을 고지했고 이에 따라 장로·장신·침례 등 개신교계 신학대학들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됐다. 중앙승가대 운영 법인 승가학원도 지정고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간 학제 개편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하며 해당 파고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8년 첫 고시 이후 17년 동안 폐교, 학과 개편 등이 이뤄짐에 따라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시 제정 이후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등 종교인 양성과 관련 없는 학과들이 다수 개설됐다. 이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재지정·고시하려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당국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전공들을 종교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교과로 분류하지 않는 추세다.

실제, 중앙승가대는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평가에서 스님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설했던 ‘사회복지학 전공’이 종교지도자 양성 전공이 아닌 일반 전공으로 분류돼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에 중앙승가대는 학제를 개편해 불교학부, 불교사회학부를 ‘승가학부’로 통합하고 △불교·역경 과정 △선명상상담 과정 △포교(실천불교) 과정 △불교문화유산 과정으로 교과과정을 정리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학 전공은 교양 교과과정(자격인증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 같은 적극적 대처로 중앙승가대는 9월 1일 교육부로부터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으로 재지정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서 해제됐다. 이를 바탕으로 예고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에 이의 신청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중앙승가대 기획실 관계자는 “학제 개편을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을 교양 교과과정으로 전환했고, 교육부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임이 인정돼 내년부터 국가장학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예고된 지정고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다시 국가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인정한 만큼 본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은 현재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기준을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인의 역할이 공공복지, 문화 등의 영역으로 확대됐음에도 자격증 취득 관련 전공들을 일반 전공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과의 지속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승가대 기획실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 기준을 통해 100%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만 커리큘럼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목표”라면서 “사회복지 등 공공사업에 대한 종교인의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에서는 변화되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WISE캠, 불교동아리방 ‘가람당’ 현판 제막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에 청년 불자들의 새로운 도량, 불교학생연합 동아리방 ‘가람당’이 문을 열었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9월 2일 학생회관 5층 가람당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류완하 총장을 비롯해 정각원장 법천 스님, 동아리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돈관 스님은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모이는 가람당이 배고픈 이나 마음이 고픈 이 모두 찾아와 상담하고 대화하며 공부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현재 WISE캠퍼스에는 불교문화대학 ‘부르나’를 비롯한 7개 불교동아리에서 2300여 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글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중앙징계위 동화사 주지 ‘직무정지’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가 9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혜정 스님은 지난 4월 14일 총무원 감사국이 실시한 동화사 특별감사를 거부했고,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세 차례에 걸친 특별감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종단이 4월 24일 오전 11시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한 행정지시에도 불응했다.

징계위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사찰법’과 ‘종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는 7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징계개시를 결정하고, 8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혜정 스님의 소명을 청취한 바 있다.

〈관련 기사 3면〉 김내영 기자

급증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선교 창구’되나

미래 인재를 길러 내는 신성한 교육공간인 학교가 편향된 종교적·정치적 가치관을 이식하는 ‘선교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극단적 교리와 극우적 사상을 가르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리박스쿨’처럼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등에서 편향적 교육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여기에는 “대안학교 설립으로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목사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다.

“대안학교 세우면 기독교 국가 된다”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의 기독대안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세계로교회는 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을 설립한 후 올해 3월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아카데미의 학교 설립(인가) 계획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교명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인 ‘우남’을 사용한 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세계로교회를 이끌고 있는 손현보 목사는 올해 2월 열린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에서는 “교회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우리 청년들이 학생을 가르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세이브코리아’의 대표이기도 하다.

전국 기독대안학교 400곳 추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독대안학교는 313곳으로 집계됐는데, 현재는 최소 40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 개신교는 지난 20여 년간 ‘1교회 1학교 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1990년대 교회 등을 주축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유·초·중등 대안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100여 개의 미인가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이 시도 교육청에 등록했다. 법 제정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교육바우처’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직접 예산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기독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치권, 관련 법 개정 적극 나서

이런 흐름은 정치인들의 지원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학교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이끌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제 의정 활동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기독교 교육단체들은 정치권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자율성 보장과 교육바우처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교육,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올해 6월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는 잘못된 이념이 어떻게 교육 현장에 침투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승만·박정희스쿨’을 뜻하는 리박스쿨은 겉으로는 역사 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에서 기독교 교리와 정치적 이념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독대안학교에서 극단적인 종교관과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뉴스 보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기독대안학교들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놓친 다양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통로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특정 종교와 이념을 전파로 변질된다면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일부의 편향된 행태로 대안교육 전체가 불신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여수령 기자

2025 제10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일시 2025. 9. 27. 토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10:00~10:20 개회식 사회: 심성학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세션 1 좌장: 박근영 한마음과학원 회원
10:30~11:30 인공지능 시대의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성: 불교적 관점
발표: 박진영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 미국 토론: 청동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
11:45~12:45 白雲和尙語錄에 실린 편지의 분석을 통해 본 白雲和尙(1298-1374)의 생애와 사상
발표: 야닉 브뤼느통 파리 시테 대학교 교수, 프랑스 토론: 혜유스님 한마음아카데미, 독일
세션 2 좌장: 김종훈 김종훈치과 원장
14:00~15:00 한마음(오직 心)의 힘과 의본론(意本论): 금강경에 대한 비교철학적 해석
발표: 원하이밍 인민대학교 교수, 중국 토론: 김재영 산동대학교 치루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문학자, 중국
15:00~15:50 오공(五共)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상유도명상 프로그램 체험 연구: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 중심으로
발표: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16:00~16:30 앎의 환상으로부터의 해탈 - 대행선과 족첸의 관점에서
발표: 오영국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토론: 양영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17:00 수행으로서의 축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입각한 한마음선원의 연등회 준비
발표: 박진영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 토론: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17:10~18:00 종합토론 좌장: 이화행 동명대학교 교수
18:00~18:20 폐회식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